

제78차 국제대댐회(ICOLD) 베트남 연차회의 참관기



김형수
 중원대학교 에너지지원공학부
 (ICOLD Committee on Groundwater Dams 분과위원장)

토요일 오후 하노이 국제 공항은 분주했고 더웠다. 공항 시설은 현대적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베트남의 가파른 경제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베트남 전통 아오자이를 입은 아가씨가 곁에 와서는 한 마디 던진다. "ICOLD?" 이 한마디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편안하게 공항에서 호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안내를 받아 호텔 행 버스에 올라 잠시 기다리고 있을 즈음, 한국 대표단의 다른 분들도 버스에 올랐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노이 시 외각을 들어설 즈음은 어둠이 내렸다. 어둠 속 교외 지역의 건물들은 뭔가 다닥 다닥 붙어있는 느낌이 강했고, 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리 밝지 않았다. 간혹 창틀이나 출입문에 웃옷을 벗고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부채질을 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군살은 별로 없고 여위었으나 탄탄해 보이는 전형적인 동남아 남자들의 강단짐이 느껴졌다.

늦게 도착한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나니,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호텔 앞 호수는 고요했고, 멀리에서 비추는 불빛을 반사해서 나름 운치가 있고 아름다웠으나,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났다. 호수를 돌아 상

가가 있는 마을 쪽에 도착해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 그냥 진한 향기의 에스프레소를 한 잔 시켜 놓고 잠시 훌쩍거리다 그 진한 쓴맛에 반도 마시지 못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잠이 쉽게 들지 않아 이리 저리 뒤척이고 TV도 이것 저것 틀다 보니, 우리나라 방송이 나오는 채널도 한, 두 개가 있어 신기했다. 여기에도 나름 한류가 부는 이유가 다 저 한국 드라마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일찍 눈이 떠져, 새벽에 다시 호수가로 나갔다. 어제의 비릿한 냄새는 호수 주변에 떠 있는 부유 쓰레기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간혹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의 조찬은 웬만한 뷔페 식당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아침부터 과식을 하고, 서둘러 셔틀버스를 타고 ICOLD 행사장으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인데도 거리에는 오토바이와 스쿠터들이 가득했다. 도대체 저 많은 오토바이와 스쿠터들이 어디 있다 나타난 건지, ICOLD 행사 공항 가이드가 건넨 하노이의 오토바이와 스쿠터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는 농담을 실감할 수 있었다.

ICOLD 행사장은 월요일 공식 행사부터 시작될 전시회를 위한 부스 설치에 어수선 했고, 중앙부에 자리



잡은 한국대담회의 부스가 눈에 들어와 바로 가보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Kwater 연구원의 조성은 박사님과 한국대담회의 박정민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에서 부스를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 참이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다른 부스들도 잠시 잠깐 기웃 거리다 오후에 있을 회장단 및 기술위원장 회의 장소를 잠시 먼저 둘러 확인해 놓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했다.

본격적인 일정에 따라, 회장단 및 기술위원장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 시간에 맞추어 들어서는 회장단과 다른 기술위원장들과 간단한 인사를 했다. 브라질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ICOLD 신입회장은 그 특유의 중국어 사성이 섞인 동글 동글한 발음의 영어로 개회선언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바로 의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위원회 요청을 처리하고 신규 요청된 Committee on

Public Safety around Dams 기술위원회에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실행 위원회 상정시킬 안전들을 최종 정리했다. 각 기술위원회 위원장들의 보고 순서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지하수담 기술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필수적인 의제 처리 이후, 기타 토의 시간에는 신입회장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회장은 다시 한번 기술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ICOLD에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포럼 활용에 대한 건과 종이 인쇄에 따른 출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웹기반 출판 서비스 등을 논의 한 후, 이번 연차회의 이후 회원국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술위원회의 위원들 참여도에 점검과 함께 각 국가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술위원회 위원 참가를 독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ICOLD의 지속적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한국대담회 전시부스 전경 및 관람객 모습



기술분과위원장 회의전경(좌) 및 김형수 위원장 활동모습(우)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928년에 창설되어 80년이 넘게 지속된 ICOLD를 40대의 신입 회장이 뭔가 새롭게 변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느껴졌다.

한편, 같은 날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댐과 수력발전”이라는 주제의 원탁회의가 진행되었고, 한국대담회의 수석부회장이신 이순탁 교수님이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을 하셨다. 현재 아프리카는 댐에 대한 필요성은 기간 산업을 위한 전기 에너지 공급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어, 실제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댐과 수력발전소의 개발이 지속가능성을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날 일정을 마친 후, 베트남 대담회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참가자 모두 나름 정장

을 차려입고 습함과 더위와 싸우면서 만찬을 즐겼다. 만찬장은 호텔의 야외 풀장에 준비되었으며, 베트남 전통 춤과 음악이 공연되는 무대를 중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대담회 대표단들도 삼삼오오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서로의 관심사도 나누면서 만찬을 즐겼다. 그러나 많은 스탠딩 파티가 그렇듯이 파티에 참석한 후에도 뭔가가 부족하듯 허기진 현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찌개가 없어서 그런가? 든든한 아침을 먹어두길 잘 했다는 생각이 새삼들었다.

둘째날은 개별적인 기술분과 위원회와 지역별 그룹들간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순탁 수석부회장님과 류승하 부사장님, 충남대학교의 임희대 교수님, 수공의 이규탁 처장님, 김한중 팀장님 등을 필두로, 한국대담회 대표단들은 각자 담당기로 한 위원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왔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반영을 요청하였다.

각 기술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잠시 한국대담회 부스에 모인 대표단들 중 많은 분이 ICOLD 기술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대담회에서 뭔가 체계적인 기술위원의 관리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토로하였다.



원탁회의의 전경(좌) 및 이순탁 수석부회장 참석모습(우)



기술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 아시아-태평양그룹회의

같은 날 오후, 아시아-태평양 그룹(APG)에 이순탁 수석부회장님과 고덕구 학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변두균 감사님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2009년과 2010년 한국대담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소개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4대강 사업 소개에 관심을 기우렸고 개인적으로 한국대담회 부스에 찾아와 4대강 사업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챙겨가거나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향후,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ICOLD의 주요 주제로 설정하여 전 세계의 수자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국제대담회 80차 연차회의와 24차 총회를 주관하기로 한 일본 대담회의 요청에 따라 한, 중, 일 3국 대담회 대표단간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2년 ICOLD 행사 사전 견학 코스로 한국의 낙동강 일대에 대한 Pre-tour 프로그램이 논의되었고, 향후 구체화하여 결정기로 협의되었다.

둘째날 저녁은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어 지하수담 기술위원회의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편안하게 하노이 시내의 시장들을 구경 다니면서 베트남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처음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는 뒤에서 놀러대는 오토바이와

스쿠터의 경적소리에 화들짝 놀라던 모습에서 벗어나 어느새 별 신경 안 쓰는 베트남 사람처럼 천천히 가고 싶은 골목 골목을 누빌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래서 사람은 여행을 다녀야 하는 가보다. 적응력이 생기니까.

공식 행사 3일 및 4일차에는 국제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한국대담회 대표단에서도 총 10편의 논문을 제출하여 이중 성균관대의 전경수 교수님, Kwater의 조성은 박사님, 삼안의 강태호 이사님, Kwater의 반양진 팀장님이 홍수, 지반 공학, 댐 계획, 탁수 수치 모델링 등의 주제로 멋진 구두 발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다른 국가 대표단들 역시 국제 심포지움에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들 중, 특히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저감, 댐 안전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댐 개발에 대한 주제 논문들이 많았고 이러한 주제들이 현재 전 세계적인 댐 및 수자원 분야의 주요 관심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행사 4일차에는 ICOLD의 주요 사안을 회원 국가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결, 토의하는 집행 위원회(Executive meeting)가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 까지 국제 심포지움과 병행하여 계속되었다.



국제심포지엄 발표모습

김건호 한국대담회장님, 이순탁 수석부회장님, 변두균 감사님, 양해진 전무이사님 등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집행 위원회에 참가하여 국가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

24차 총회의 주요 의제 환경, 안전, 홍수 배수 필요성과 해결책, 댐 노화 및 재개발 등 4개항이 최종 채택되었으며, 각 국가 위원회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2013년 이후의 연차회의 및 총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가 치열했다. 또한 이번 집행 위원회에서 임기가 종료된 2명의 부회장이 교체되었으며, 베트남 대담회는 자체 설립 연혁이 일천하고 실제 ICOLD 참여도 2000년 이후로 매우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홈 그라운드인 이점을 십분 살려 ICOLD 부회장을 배출하는 기염을 보여주었다.

중국인 ICOLD 회장 당선, 일본의 제24차 총회 유치 등 현재 ICOLD에서 아시아 회원국의 약진은 매우 눈에 띄는 현상이고, 서구 위주의 댐 기술이 서서히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대담회도 이러한 기조에 뒤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ICOLD 활동을 통해 그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해외 진출을, ICOLD 활동을 통

해 개척해 나갈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댐 기술 선진국으로써 이들 기술을, 아직 상대적으로 댐 관련 기술이 미흡한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등의 신흥 댐 요구 국가권에 수출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집행 위원회가 끝나고 한국대담회 대표단들이 모처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주선되었으나, 필자는 복통이 심해 참석할 수 없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후에 전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과 다음 날 아침 숙취에 고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영화의 대사가 스쳐갔다. “거 큰소리 한번 내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뭘네까?” “... 뭘 많이 맥여야지.” (웰컴 투 동막골의 대사 일부)

국제심포지움과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공식 환송 만



집행위원회 참석중인 한국대담회장과 일본대담회장 모습(좌)



찬은 가든 형태의 식당에서 열렸다. 한국대표단의 일부가 국제심포지움 발표를 마치면서 바로 귀국해야 하는 일정이나 혹은 연이은 다른 국가 방문 일정으로 불참하여 공식 만찬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몇 몇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공식 환송 만찬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컨설팅 의뢰, 기술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나름 중요한 사교의 자리임에도 예산 절감이라는 허울로 각박한 출장 일정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은 국가나 소속 기관에 궁극적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학회에 참가해도 특별히 급한 약속이 없다면 간친회까지 모두 참석해 학회원들과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향후 개인이나 소속 기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는 판국에 수천 마일을 날아와 참석한 국제 행사에 공식 만찬 참석을 위해 하루 저녁 더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수석부회장님께서 그래도 한국대표단을 대표해 곳곳하게 다른 국가 대표단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뭔가 씩씩해 하는 필자의 마음을 아는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소나기가 내렸다. 조금 더 생각하고 양보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다.

2011년은 한국대담회가 만 40세, 불혹의 나이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하다. 연찬회의 참석을 통해 당장에 무엇을 배우거나, 얻어 오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78차 연차회의에 참석한 한국대담회 대표단이 무엇을 느꼈는가는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한국대담회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제 한번쯤 숨을 고르고 한국대담회의 설립 목적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한국대담회는 “국제대담회의 국내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댐 및 관련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관리에 따른 기술 향상에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70년대 80년대의 여건에서도 위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대담회 위원 활동을 해 오신 선배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국대담회가 국제대담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진정으로 댐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글을 접으면서 제78차 연차회의를 무사히 치르고, 행사 참여 주관에 세심한 배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대담회 임원님들과 사무국 관련자들에게 감사 드린다.